

IR Presentation

2021. 5월

INDEX

1. '21년 실적 및 전망

2. 재무구조 개선 계획

3. 재무개선 이후 경영 방향

1분기 영업이익은 △5,068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216억원 악화

매 출 : 1.6조원

- 해양 프로젝트 감소 영향 등으로 직전 분기 대비 △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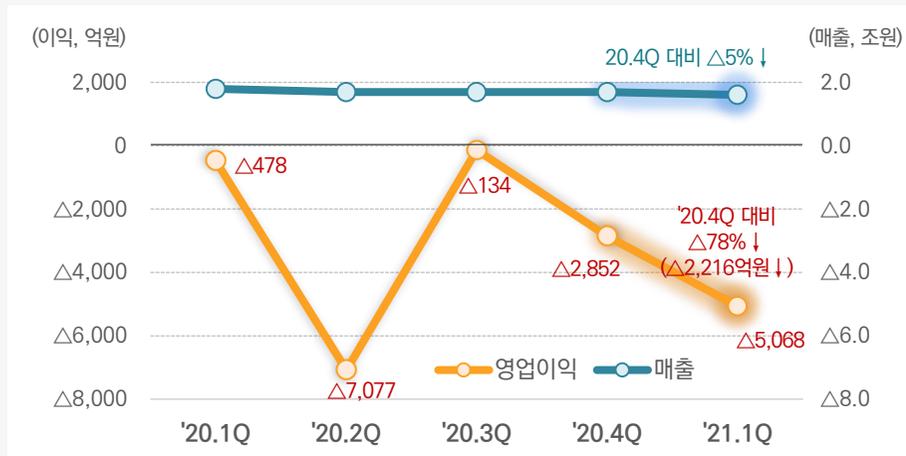
※ '21년초 BP P/F 인도, ENI FLNG 종료 임박, '19.4월 Reliance 이후 해양수주 '0'

영업이익 : △5,068억원

- 일회성 손실 △4,400억원 (강제가 인상 △1,190, 신규수주 공손충 △1,230, 드릴십 평가손 등 △1,980)

- 고정비 부담에 따른 경상손실 △668억원

〈 분기별 경영실적 추이 〉



〈 1분기 영업손실 분석 〉



시추설비 평가손실

- '20.하반기 독점협상권 부여 및 매각계약 체결한 매수처의 계약금 입금 지연으로(발효조건 미비) **시추설비 평가손실 등 $\Delta 2,140$ 억원** 반영
- 1분기 드릴십 외화공정가치 하락분 $\Delta 1,190$ 억원
 - * '20.3~4분기는 매각 협상가가 평가가치를 상회하여, '20.2분기 재고자산가액을 유지해왔음
- 환율절상 영향 등 $\Delta 950$ 억원
 - * '20.6월말 1,201원/불 → '21.3월말 1,134원/불

※ 기존 독점 협상자의 매매계약 지속 의사, 매입조건부 BBC계약 희망 선주 출현 등 ※ Bare Boat Charter (나용선계약) 드릴십에 대한 시장내 매입의사가 확대되고 있어 조기 매각 종결로 드릴십 불확실성 제거 기대

기타 요인

- **해양 클레임 관련 대손충당 $\Delta 360$ 억원**
 - ※ Ichthys CPF
 - 공기지연, 품질문제 등에 대한 양사간 이견으로 중재절차 개시에 따라 재무적 Risk 충당 설정 ※ '21. 4월말
- **'21년 출항 BP Argos C/O 520**
 - 거제 야드 출항 시 인센티브 확보 등
- **고정비 부담에 따른 경상손실 $\Delta 668$**
 - 현재 창출부하 기준 분기당 약 $\Delta 700$ 부담 발생

※ 시추선 매각, 각종 소송/중재, 자산손상 등 예상되는 Risk들의 현실화 가능성과 금액들을 적절히 평가하여 누락없이 반영 중으로 여건변동에 따른 손실 증가 외 추가 Risk 低

연간 매출 6.9조원, 영업이익 적자 △7,600억원 수준 전망

수 주 : 91억불

- 조선 71억불 (계획 46억불 대비 54% ↑), 해양 20억불 (계획 32 대비 △38% ↓)

매 출 : 6.9조원

- 연초 계획 7.1조원 대비 감소 사유는 해양프로젝트(Bonga FPSO) 수주 지연 영향

영업이익 : △7,600억원

- 1분기 △5,068억, 2~4분기는 분기당 △700억 수준의 고정비 부담 및 드릴십 Lay-up 비용 추가 반영
※ 드릴십 매각지연 가능성 대비 1년 추가 Lay-up비용

(수주:억불, 매출:조원, 이익:억원)

	당초계획	금번전망	1분기	잔여	계획대비	비 고
수 주	78	91	51	40	17% ↑	
조 선	(46)	(71)	(51)	(20)	54% ↑	· 컨테이너선 수주 호조 영향
해 양	(32)	(20)	(-)	(20)	△38% ↓	· H블록, Petrobras PJT 제외
매 출	7.1	6.9	1.6	5.3	△4% ↓	· 상반기 3.2조원 → 하반기 3.7
영업이익	미공시	△7,600	△5,068	△2,5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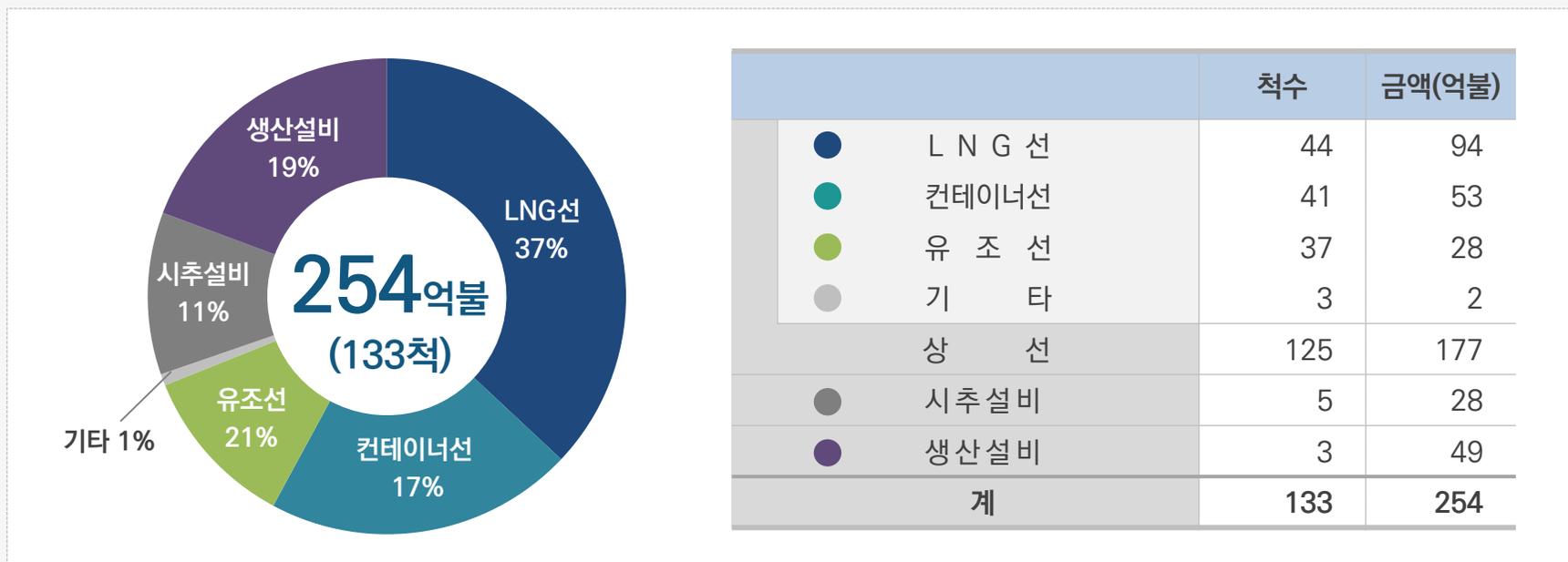
'21년 1분기 신규수주는 51억불, 3월말 현재 수주잔고는 254억불

'21년 1~3월 신규수주 : 51억불

- 컨테이너선 43억불(34척), 탱커 6억불(7척), LNGC 2억불(1척)

'21. 3월말 현재 수주잔고(인도 기준) : 254억불

- 매출기준 수주잔량은 16.2조원으로 '15년 이후 최고 수준 ['16년말 10.0조원 → '18년말 12.3 → '20년말 12.0]



INDEX

1. '21년 실적 및 전망

2. 재무구조 개선 계획

3. 재무개선 이후 경영 방향

'14년 이후 지속된 불황을 지나, 코로나 시기를 변곡점으로 점진적 회복 국면

1, 2차 증자 이후 더딘 시장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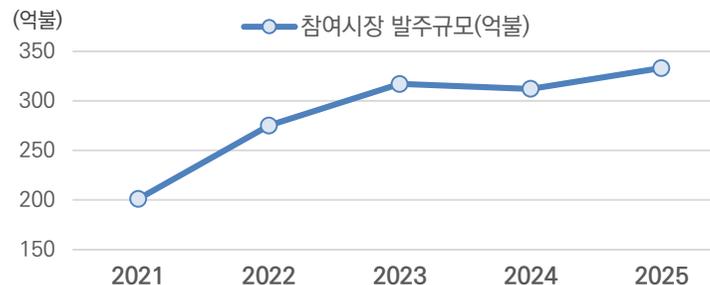
- 증자 이후 시황회복을 기대했으나, 발주 및 선가 회복 담보, 저유가, 강제가 인상 등 시장회복은 기대 이하
- 시장회복 지연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수요보다 생산CAPA가 큰 조선업 전반의 '공급과잉 상태'
- '20년 코로나 발생까지 겹쳐 에너지/물류 수요 감소로 설상가상의 상황



※ 출처 : '21.3월 클락슨 선가 데이터

점진적 회복 기대

- 과잉 공급 CAPA는 최근 조선사간 인수합병 등 시장경쟁체제 변화로 조정되고 있는 것이며,
- 발주수요는 친환경·스마트 기술 Trend와 함께 선박교체 수요가 맞물려 회복중인 상황으로 '23년 이후 발주규모 본격 확대 예상
- '21.1분기 컨테이너선의 계약선가 인상 등 감안 수요 확대에 따른 선박 신조계약가 회복 기대



※ 출처 : '20.9월 클락슨 Forecast

현재의 Risk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필요

시장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누적적자로 인해 악화된 재무구조는 경쟁의 큰 걸림돌

- 6년 연속 적자(누적 $\Delta 4.3$ 조원)로 인해 '21.3월말 부채비율 262%로 증가했으며
※ '15~'20년 영업이익 기준 *'18년말 (2차 증자 후) 112%
자본총계가 자본금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부분자본잠식 발생이 예상되는 등 재무구조 악화 심화

⇒ 최근 수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RG 발급 차질 등의 금융권의 여신거래 제약 발생 가능성 증가

경쟁사 합종연횡, 정책·기술 변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투자 필요

- 친환경/신기술, 스마트 제조, ESG 경영환경 등 변화하는 Trend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

⇒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도 악화된 재무구조 하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



주주 가치 변동없이 자본구조 개선효과가 발생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고,
※ 자본잠식 해소
재무구조 개선 및 미래 경쟁력 강화 목적의 선제적 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도 추진할 계획

※ 일정은 수권주식수 확대가 완료되는 임시주주총회(6월22일) 이후 확정 예정

순서는 감자 완료 후 유상증자 추진 예정

유상증자는 약 1.0조원 수준, 무상감자는 5:1 액면가 감액 형태로 추진

유상증자 :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권 평가 대응 및 투자 자금 확보 목적
약 1조원 규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일반공모 방식으로 추진 예정

무상감자 : 발행주식수의 변동이 없어 주주가치 훼손 없는 자본구조 개선 (자본잠식 해소)
5:1 액면가 감액방식으로 추진 (액면가 : 5,000원 → 1,000원)

추진 일정

- '21. 5. 4(화) : 무상감자 및 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 이사회
- 6.22(화) : 임시주총 [액면가 5:1 감액의 건, 수권주식수 확대(8억주 → 15억주) , 정관 정비 등]
- 6.23(수) ~ : 무상감자 절차 진행

※ 유상증자 추진일정은 6월22일 임시주총 이후 확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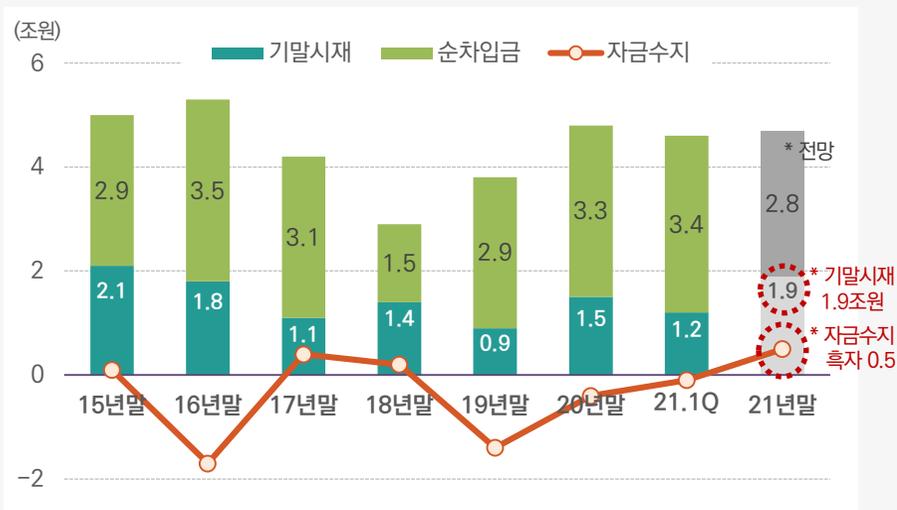
[목적]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 및 미래를 위한 투자 자금 확보

'21.3월말 보유시재는 1.2조원, 2~4분기 자금수지는 흑자 0.6조원 전망으로 자금 Risk 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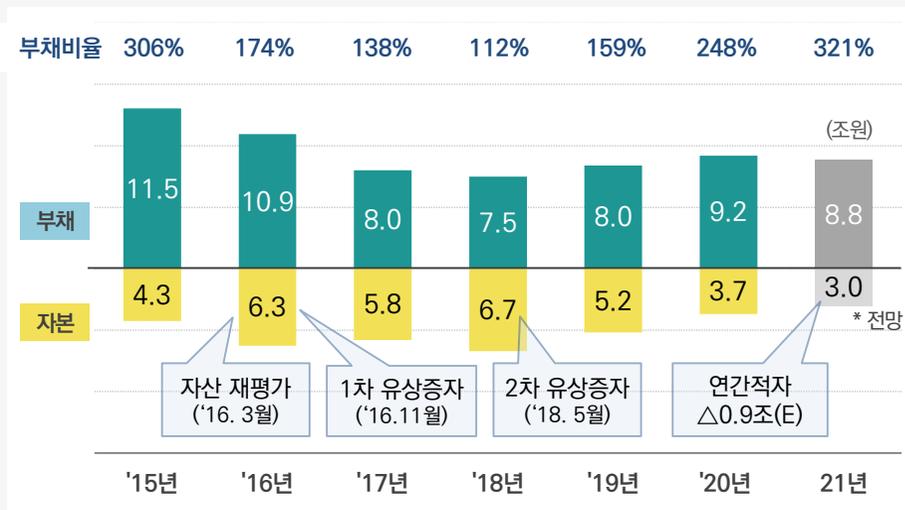
- 2~4분기 자금수지 흑자는 '20년말 수주 Arctic LNG 1차 선수금 0.5조원 입금 영향 등

현재 높은 부채비율(262%)과 자본잠식 진입단계임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자본을 보강하고
 ※ '21.3월말 기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 확보를 위함

〈 '15~'21년 자금수지/기말시재 〉



〈 '15~'21년 부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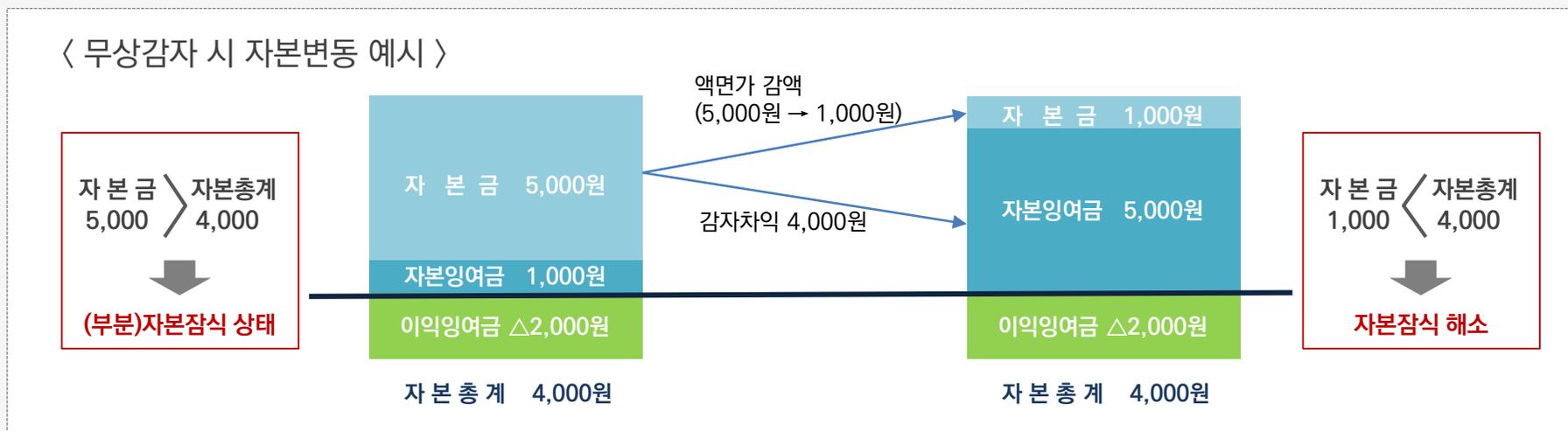


[목적] 자본잠식 우려 해소로, 재무구조 개선효과 배가

재무구조 개선 중 부채비율은 증자로, 자본잠식은 감자로 해결 가능

- 당사는 자본금이 자본잉여금 대비 비중이 과다하여, 적자 발생 시에 자본잠식이 쉽게 발생하는 구조
※ 자본총계 < 자본금
- 계속된 적자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부실회사로 인식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흑자전환을 위한 내부적 노력은 물론, '21년 부분자본잠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자 실시 결정

※ 액면가 감액의 경우 자본 구성만 변동되며, 주식수는 유지되고 회사재산의 유출이 없어 주주가치 변동은 없음
※ 자본금 ↔ 자본잉여금



[방법] 5:1 액면가 감액 방식으로 추진하며, 주주 이익배당 기초도 마련

추진방식 : 5:1 액면가 감액, 주주 균등감자

- 감자의 주 목적 역시 재무구조 개선으로, 증자로 해결할 수 없는 자본잠식을 해결하기 위함
 - 통상적으로 자본잠식률이 50%에 다다르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등을 피하기 위해 감자를 실시하나, 현재 삼성중공업은 자본잠식 시점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재무개선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
- 액면가액을 5:1로 감액하는 방식으로, 주식수 변동은 없음
 - 주식 액면가액은 균일해야 하므로, 모든 주주에 평등하게 적용하는 균등감자 형태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주주 환원정책 전개를 위한 기반도 마련

- 감자 시 발생하는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나,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시 배당가능이익 증가
 - 배당 가능이익 : '20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Δ 1.1조원 \rightarrow 1.4조원 (감자차익 2.5조원 단순 합산시)
- 향후 흑자 전환 등 경영 정상화 때에는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 수립 추진

INDEX

1. '21년 실적 및 전망

2. 재무구조 개선 계획

3. 재무개선 이후 경영 방향

자본잠식이 해소되고, '21년말 부채비율은 200% 하회 전망

'21년말 자본잠식률 : 개선前 14% → 개선後 0%

- 5:1 무상감자로 자본총계는 유지되나, 납입자본금 감소 및 자본잉여금 증가로 자본잠식 해소

'21년말 부채비율 (추정) : 321% → 198%

- 유상증자 확보자금 및 기존시재를 활용하여 차입금 1.5조원 상환 시 △123%p 축소 가능할 전망

	'20년말	'21년말			
		현 전망	감자 완료시	증자 완료시	차입금 상환시
자산 총계	12.9	11.9	11.9	12.9	11.4
부채 총계	9.2	9.1	9.1	9.1	7.6
자본 총계	3.7	2.8	2.8	3.8	3.8
납입자본금	3.1	3.1	0.6	0.9	0.9
자본/이익 잉여금 등	0.6	△0.3	2.2	2.9	2.9
부채비율(%)	248%	321%	321%	238%	198%
기말시재	1.5	1.9	1.9	2.9	1.4
총차입금	4.8	4.7	4.7	4.7	3.2
순차입금	3.3	2.8	2.8	1.8	1.8
(자본잠식률)	(-)	(14%)	(-)	(-)	(-)

차입금 1.5조 상환

차입금 상환 후에도 기말시재 1.4조 수준

증자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기술개발 및 ESG 경영 등을 위해 투자

친환경 기술개발

-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선박 및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
 - 국제해사기구(IMO)는
CO₂배출량을 '30년 40%, '50년 7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규제 시행
- 당사는 친환경 선박 뿐만 아니라
* CO₂ 포집, 연료절감 등
차세대 연료기술, 스마트십 솔루션 등
* 연료전지, 수소, 암모니아 등 * 자율운항 등
신기술을 개발/확보 중



※ LNG실증설비 ('21.6월 완공 예정)

스마트 야드 구축

- IoT 기반으로 AI, Big Data를 활용한
스마트 생산/설계/Work를 축으로 한
'Smart Factory' 구축 중
- 스마트 생산
: DT/AI를 통한 공정 시뮬레이션 및
* Data Technology
최적화 시스템 개발,
용접 및 라벨링 자동화 장비 개발 등
- 스마트 설계
: RPA 기술을 적용한 설계 생산성 향상,
* Robotic Process Automation
3D 모델링 기반의 Paperless 구축 등
- 스마트 워크
: 금속 3D 프린팅을 통한 건조공법 혁신,
QR코드 및 RFID 활용한 자재 관리 등

ESG 경영강화

- 기존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탈피하여,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경영
- 환경오염 방지, 안전한 작업장 조성,
탄소중립 등을 위한 투자가 진행중
- 친환경 연료로 교체(등유, LPG → LNG)
- 도장공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 노후공장, 시설, 조도 개선 등 작업여건 개선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3L 도장공장

급변하는 시장의 Needs를 철저히 준비하여 미래 경쟁력 확보

금번 개선된 재무구조가 지속되도록 고정비 감축, 수주 확대, 사업 스펙트럼 확대 등 자구적 노력 병행 추진

고정비 감축을 위한 인력 및 자산 효율화

- 중장기 사업규모에 적합한 인력구조 재편 및 고정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산청연수원, 사원아파트 등 비생산자산을 지속적으로 매각 진행 중

'21년 계획(78억) 및 전망(91억불)을 상회하는 신규수주 추진

- '21년 전망 수주 목표 91억불(잔여 40억불)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 영업활동 전개
- 외부 조선소를 활용한 Half-Ship 건조공법 등을 통해 원가 개선 및 추가수주 여건 마련

해외 Operation 등 사업 스펙트럼 확대

- 러시아 Zvezda 사업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잠재적 프로젝트 추가 수주를 확보하고
러시아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Operation 확대 검토

조선·해양 외의 부문에서 매출 및 수익 확대로 고정비 부담 경감

중공업 보유역량(자동용접, 모듈공법)을 기반으로 반도체공장 물량 확대 추진 중

- 평택공장 건설은 최근 반도체 수급난으로 공장 건설 납기 단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사는 조선, 해양플랜트 수행 경험으로 축적한 **자동 용접기술**과, 외부작업장에서 제작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 및 탑재하는 **모듈공법**으로 공장건설 납기 단축에 기여가 가능함을 인정받아 반도체공장 건설 수주에 성공
- '21년초에 수주한 2차 파일럿 공사(V2라인 약 600억원, 건축+설비 복합공종)를 성공적으로 수행 후 지속적으로 반도체 건설공사 물량을 확대 수주해 나갈 계획
 - ※ '20년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소액의 1차 파일럿 물량(P2라인)은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

〈 전자 평택공장 생산시설〉



〈 중공업 차별화 제조 역량〉



무재해 : **重工業 안전관리 기법 현장 적용**
 ※ 국제적 IOC, NOC 공사시 안전 Standard 적용



완벽품질 : **전문 인력 및 선진화 시스템 접목**
 ※ 국제인증 용접검사원 상주 및 현장지도



원가절감 : **新공법 발굴 및 생산 기술 고도화**
 ※ 배관용접 100% 자동화 확대



납기단축 : **역량 내재화 및 최적 공법 추진**
 ※ 거제 조선소 내 단일 작업장 구축

재무구조 개선 및 기술투자로 미래경쟁력을 확보하여 '23년 흑자 전환 후 꾸준히 적정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 운영

'21년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부하 영향으로 '22년 흑자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해양프로젝트 수주 지연으로, '22년 매출은 '21년 대비 하락 전망되어 고정비 부담 가중 영향으로 흑자 전환은 어려운 상황

그러나, '23년부터는 '21년 수주 증가 및 금번 발표한 대책들의 효과가 발생하며 추진중인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흑자 전환 가능

